

유아기 자녀에 대한 모친의 구강건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세나 · 김은숙¹

영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¹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mothers for young children

Sae-Na Lee · Eun-Sook Kim¹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Youngdong University ¹Dep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Received : 18 August, 2012
Revised : 6 December, 2012
Accepted : 10 December, 2012

Corresponding Author

Eun Sook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Munam-ro(Rd),
dongnam-gu, Cheonan, 330-704, Korea
Tel : +82-41-550-2730, +82-11-309-0223
Fax: +82-41-550-2829,
E-mail: kes1996@bu.ac.kr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ere to find out differences in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care behaviors and to find out factors that affected mothers' oral health care behavior for their young children.

Methods :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questionnaire about personal factor, cognitive factor, psychological factor and behavioral factor to 227 mothers. They had children from 3 to 5 year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 12.0.

Results :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oral health knowledges as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importance of oral health,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oral health locus of control.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oral health care behaviors as mother's job, interest of oral health, importance of oral health,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and oral health locus of control. And mother' oral health care behavior for herself, interest of oral health, and oral health locus of control were found as important variables in mothers's oral health care behavior for their children.

Conclusions : Mother's oral health care behavior for herself was the powerful factor that affected mother's oral health care behavior for her children.

Keyword : locus of control,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ral health care behavior, oral health education

색인 : 구강보건교육, 모친의 구강건강통제위,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유아기 구강건강관리

1. 서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우리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건강한 치아를 오복중의 하나로 여길 정도로 구강건강을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 왔다. 구강은 음식물의 섭취, 저작, 연하, 발음 등을 관장하는 곳으로 전신건강을 유지하고 심미적인 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구강내의 질환은 흔히 발생하며 또한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관심도가 낮은 편이다¹⁾.

성인기 치과질환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의 구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치과질환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어린 시절의 구강건강관리는 일생을 통해 좋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3)}.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구강건강은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영유아기 아동들은 아직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영유아들의 경우 구강건강관리는 그들의 의지와 태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호자인 어머니들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영유아기에 어머니가 제공하는 올바른 건강증진 행위는 이후의 아동기에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태도나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일생의 건강에 지침이 된다⁷⁾.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위와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머니 관련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직업, 소득정도 등과 같은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은 사회적 수준은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상관이 있으며⁸⁻¹²⁾, 자녀의 치아우식 경험도와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³⁾.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았으며¹⁴⁾, 구강보건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다^{12,15,16)}.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17,18)}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치아우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19)}.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구강보건상태에서는 일치되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최근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모 자녀의 구강상태가 비맞벌이 부모의 자녀의 구강상태 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그리고 전문직 맞벌이 어머니 보다 비전문직 맞벌이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²¹⁾.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은 어머니의 구강보건과 관련한 지식정도,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정도, 구강보건교육경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강건강의 향상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수준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²²⁾. 구강보건지식은 예방적 방법의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²³⁾으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은 자녀의 구강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치며²⁾ 자녀의 구강보건수준에 영향을 미친다^{24,25)}. 즉 어머니의 지식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치아우식증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건강행위실천 역시 높고^{21,26)},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구강위생관리뿐 아니라 자녀의 구강보건행태도 양호하게 나타났다^{16,27)}. 어머니의 구강보건교육은 유아기 구강보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은 구강건강에 대한 태도, 건강신념, 가치관 등이 있다. 특정한 행동의 수용과 변화는 지식의 공급만으로는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을 공급할 때는 행동변화 이전에 설득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태도를 변화시키는 K-A-P공식(Knowledge, Attitude, Practice)에 의해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²⁸⁾는 차원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되고 있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는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은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³⁰⁾. 어머니의 건강신념은 자녀의 건강신념에 영향을 주고 예방적 행동으로 치과방문 횟수와도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10,30)}.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요인은 구강관리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행동으로 예방목적의 구강행동, 칫솔질, 치과방문, 당섭취 제한 등이다. 행동학적 측면에서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이 유아들의 구강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¹⁵⁾. Lee³¹⁾와 Lee³²⁾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신념보다 구강건강관련 행위가 자녀의 구강건강관련 행위에 더욱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Choi¹⁶⁾는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은 자녀의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예방목적의 구강행동은 자녀의 구강보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5,10)}.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칫솔질 횟수가 높았으며⁹⁾, 어머니의 평소 치과방문을 통한 예방적 행위들은 자녀의 예방행위를 위한 방문으로 이어진다¹⁹⁾. 이렇게 어머

Table 1. Property of subject

Category		N	%
Age	20'	29	12.8
	30'	158	69.6
	40'	40	17.6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81	35.7
	college	68	30.0
	university	78	34.4
	Under 100	7	3.1
Income Level	100-200	67	29.5
	200-300	96	42.3
	300-400	35	15.4
	400-500	12	5.3
	Over 500	10	4.4
Employment	yes	142	62.6
	no	85	37.4
Age of child	3	49	21.6
	4	81	35.7
	5	97	42.7
Total		227	100.0

니의 구강보건행태는 자녀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3,34}.

이렇게 유아기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위와 구강건강을 설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각각도로 총체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며, 효율적인 어머니 대상의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개인적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본인구강건강관리,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Y군에 3,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미회수된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연구를 위해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총 227부(설문응답율 76%)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구성은 어머니의 구강보건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 인지적 변인, 심리적 변인, 그리고 행동적 변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내용과 응답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변인측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직업, 그리고 자녀의 연령을 선정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치아발달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구강보건과 관련된 지식이나 자녀구강건강관리 행동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질문에 적합한 답이 없는 경우, '기타'란에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인지적 변인측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구강보건관련 지식,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정도, 구강보건교육 경험을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구강보건관련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Lee³⁵와 Choi³⁶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Kwon²⁸이 선별수정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구강보건 지식에 관한 설문지는 치아우식증에 관한 9문항, 불소에 관한 5문항, 잇몸질환에 관한 6문항, 잇솔질에 관한 3문항, 그리

고 기타 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7점까지이며, 고득점일수록 구강건강과 관련한 지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 정도로 측정하였고, 어머니의 구강보건교육경험은 구강보건교육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도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대해서는 '있다/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심리적 변인측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구강건강통제위(Oral Health Locus of Control)를 측정하였다. 구강통제위는 사회학이론 관점에서 건강행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일반적인 기대개념³⁷⁾인 건강통제위(Health Locus of control)에서 나온 개념으로, 자신의 구강건강을 통제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대성향 또는 특성이다. 개인의 구강건강통제위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구강건강통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Wallston과 Wallston³⁸⁾이 개발한 건강통제위 척도를 Lee³⁵⁾가 구강건강통제위에 관한 문항으로 수정하였고, Kwon²⁹⁾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선별수정하였다. Kwon²⁹⁾의 연구에서 사용한 구강건강통제위 설문지는 내적통제위 5문항, 외적통제위 3문항, 우연통제위 1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우연통제위는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요인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위와 외적통제위로 구성된 총 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내적통제위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1$ 이고, 외적통제위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59$ 였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행동적 변인측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적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으로 선정하고 측정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 구강건강관리행동도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본인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Choi³⁶⁾와 Kwon²⁸⁾의 구강보건연구와 KAPD³⁹⁾(<http://www.kapd.org>)에서 제공하는 유아기 구강관리내용을 기초로 어머니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과 어머니의 자녀 구강건강관리행동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는 건강한 상태에서 구강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고 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머니의 본인 구강건강관리행동 9문항과, 어머니의 자녀구강관리행동 8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구강건강관리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2.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2011년 4월부터 4월 29일까지 4주 동안 충북 Y군에 위치한 4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3, 4, 5세 유아들의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각 기관의 연구협조동의서를 받아 본 설문지를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하였고, 각 기관을 통해 회수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개인적, 인지적, 심리적 변인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t-검증 또는 F-검증을 사용하였고, 사후분석 방법으로는 Scheffé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구강건강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어머니의 개인적, 인지적, 심리적 변인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개인적, 인지적, 심리적 변인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care behaviors according to personal, cognitive, psychological variables

Variable	N	Dental caries M(SD)	Fluoric M(SD)	Periodontal M(SD)	Brushing M(SD)	Others M(SD)	Knowledge total M(SD)	Behavior for self M(SD)	Behavior for child M(SD)	
Age	3	29	6.90(1.37)	3.79(1.15)	4.21(1.08)	2.66(6.14)	2.55(.69)	20.10(3.10)	27.72(5.59)	30.48(4.19)
	4	158	6.56(1.21)	3.42(.99)	4.05(1.18)	2.49(.79)	2.68(.84)	19.20(2.98)	27.70(4.32)	30.05(4.43)
	5	40	6.68(1.21)	3.40(.98)	4.15(1.17)	2.58(.81)	2.48(.82)	19.28(2.86)	27.20(4.62)	28.85(3.82)
	F		.98	1.74	.29	.68	1.19	113	.20	.16
Edu	high s	81	6.35(1.27) ^a	3.53(.95)	3.98(1.24)	2.57(.69)	2.53(.82) ^a	18.95(2.86)	27.64(4.45)	30.06(4.28)
	college	68	6.64(1.23)	3.35(.97)	4.10(1.17)	2.43(.83)	2.84(.70) ^b	19.37(2.89)	27.56(4.87)	30.25(4.18)
	university	78	6.88(1.15) ^b	3.50(1.11)	4.19(1.07)	2.56(.80)	2.55(.88)	19.69(3.16)	27.64(4.37)	29.41(4.45)
	F		3.92 [*]	.63	.70	.78	3.23 [*]	1.24	.01	.78
Inc	200	74	6.55(1.28)	3.41(1.01)	1.27(.15)	2.55(.78)	2.61(.86)	19.05(2.91)	27.08(4.13)	29.69(4.06)
	200~300	96	6.63(1.22)	3.41(1.03)	1.09(.11)	2.58(.66)	2.65(.75)	19.43(2.93)	28.19(4.76)	30.35(4.49)
	300	57	6.70(1.19)	3.65(.97)	1.13(.15)	2.39(.92)	2.63(.88)	19.53(3.16)	27.35(4.60)	29.39(4.31)
	F		.23	1.23	.98	1.25	.04	.49	1.38	1.03
Emp	yes	142	6.58(1.31)	3.50(1.00)	4.00(1.18)	2.47(.81)	2.68(.79)	19.24(3.09)	27.77(4.74)	29.88(4.66) ^a
	no	85	6.68(1.10)	3.41(1.04)	4.22(1.14)	2.61(.71)	2.55(.87)	19.48(2.78)	27.35(4.17)	29.92(3.67) ^b
	F		2.75	.01	.01	2.45	2.67	.91	.49	6.44 [*]
	CA									
CA	3	49	6.78(1.12)	3.41(1.19)	4.27(1.20)	2.51(.79)	2.76(.88)	19.71(3.29)	27.88(4.23)	30.39(3.96)
	4	81	6.60(1.20)	3.53(1.04)	4.05(1.14)	2.64(.71)	2.59(.77)	19.42(2.74)	27.25(4.90)	29.54(4.04)
	5	97	6.56(1.31)	3.44(.90)	4.03(1.17)	2.43(.80)	2.60(.82)	19.06(3.00)	27.79(4.39)	29.94(4.69)
	F		.52	.27	.73	1.64	.73	.74	.42	.59
Int	common	49	6.47(1.43)	3.45(1.02)	3.86(1.15)	2.43(.82)	2.59(.89)	18.80(3.34)	25.69(3.33) ^a	27.57(3.78) ^a
	high	116	6.72(1.05)	3.53(1.08)	4.13(1.17)	2.53(.78)	2.59(.84)	19.50(2.80)	27.64(4.23)	29.52(3.72) ^b
	higher	62	6.56(1.39)	3.37(.89)	4.19(1.16)	2.58(.71)	2.73(.71)	19.44(2.99)	29.10(5.33) ^b	32.44(4.50) ^c
	F		.78	.48	1.30	.55	.59	1.02	8.21 ^{***}	21.72 ^{***}
Imp	common	15	5.93(1.53) ^a	3.07(1.09)	3.40(1.12)	2.00(1.20) ^a	1.93(1.16) ^a	16.33(4.06) ^a	26.80(3.43)	27.33(4.76) ^a
	high	80	6.80(1.02) ^b	3.48(1.07)	4.09(1.16)	2.59(.65) ^b	2.80(.72) ^b	19.75(2.58) ^b	27.31(4.46)	28.75(3.61) ^a
	higher	132	6.59(1.29)	3.51(.97)	4.17(1.15)	2.55(.77) ^b	2.61(.79) ^b	19.42(2.89) ^b	27.89(4.69)	30.88(4.38) ^b
	F		3.28 [*]	1.28	2.97	3.88 [*]	7.67 ^{**}	9.06 ^{***}	.67	9.60 ^{***}
Exp	yes	100	6.78(1.24)	3.49(1.09)	3.91(1.14) ^a	2.47(.82)	2.61(.85)	19.26(3.36)	28.52(4.17) ^b	30.71(4.22) ^b
	no	127	6.49(1.21)	3.44(.96)	4.23(1.17) ^b	2.57(.73)	2.65(.79)	19.39(2.65)	26.91(4.69) ^a	29.25(4.29) ^a
	F		1.73	.60	-2.06 [*]	-.94	-.33	-.32	2.70 ^{**}	2.56 [*]
	HLC									
HLC	inner	90	6.59(1.16)	3.56(.97)	4.33(1.14) ^b	2.56(.72)	2.69(.82)	19.72(2.70)	26.92(4.25)	30.78(4.13) ^b
	outer	88	6.72(1.39)	3.40(1.02)	3.93(1.18) ^a	2.45(.83)	2.59(.91)	19.10(3.41)	28.38(4.86)	29.36(4.01) ^a
	no distic	49	6.51(1.06)	3.41(1.08)	3.92(1.11)	2.59(.76)	2.59(.64)	19.02(2.59)	27.53(4.27)	29.22(4.91)
	F		.49	.57	3.38 [*]	.62	.39	1.31	2.32	3.22 [*]

* p < .05, ** p < .01, *** p < .001

^{ab}: result of Scheffe

Edu: Educational background, Emp: Employment, Inc: Income level, CA: Child's age, Int: Interest in oral health, Imp: Importance of oral health, Exp: Education experience, HLC: Oral health locus of control

와 같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치아우식관련 지식과 기타지식에 차이를 보였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본인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구강건강의 중요도 인식에 따라 치아우식 관련 지식, 잇솔질 관련 지식, 기타지식, 구강보건지식총점,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고,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라 치주질환 관련 지식, 본인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으며, 구강건강통제위에 따라 치주질환관련 지식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동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mothers for child

Mod.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R2	AdjustedR2	F
		B	Std. Error	β	t			
1	constant	16.22	1.51		10.72***	.27	.27	83.75***
	Care behavior for self	.50	.05	.52	9.15***			
2	constant	11.08	1.76		6.29***	.34	.34	59.21***
	Care behavior for self	.43	.05	.45	7.99***			
	Interest of oral health	1.74	.35	.28	5.05***			
3	constant	12.16	1.78		6.82***	.37	.36	42.99***
	Care behavior for self	.43	.05	.46	8.25***			
	Interest of oral health	1.70	.34	.28	4.98***			
	Health locus of control	-.55	.21	-.14	-2.70**			

* p<.05, ** p<.01, *** p<.001

강관리행동, 구강건강관심도, 그리고 구강건강통제위 순으로 나타났다.

4. 총괄 및 고안

영유아의 구강건강은 일생의 구강건강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아들은 아직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구강건강관리는 보호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그들의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유아와 가정내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어머니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중 학력변인에 따라 구강보건지식에 차이를 보였고, 직업유무에 따라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보다 치아우식관련 구강보건지식(F=3.92, p<.05)과 치아발달과 응급처치 등과 같은 기타 구강보건지식 수준(F=3.23, p<.05)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Song⁴⁰⁾의 연구와 Kim 등¹⁸⁾의 연구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다(F=6.44, p<.05). 즉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의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수준(M=29.92, SD= 3.67)이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

의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수준(M=29.88, SD=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Lee²¹⁾와 Kim 등¹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양육과 교육 등에 할애할 시간이 적고,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다른 신체질 환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구강보건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시설, 돌보미 또는 조부모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녀의 구강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직접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자녀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동일한 의미가 되므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동은 자녀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중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어머니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였고(F=8.21, p<.001),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에 따라서는 구강보건지식(F=9.06, p<.001)과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F=9.60, p<.001)에 차이를 보였다. 즉 구강건강에 '매우' 관심이 있는 어머니는 구강건강에 '보통' 관심이 있는 어머니에 비해 본인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구강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는 구강건강이 '보통'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어머니에 비해 전반

적인 구강보건지식(치아우식, 잇솔질, 기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건강행위실천 역시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1,26,42}. 그리고 어머니의 인지요인 중 구강보건교육경험 여부는 치주질환 구강보건지식($t=-2.06$, $p<.05$)과 본인($t=-2.70$, $p<.01$) 및 자녀 구강건강관리행동($t=-2.56$,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어머니($M=3.91$, $SD=1.14$)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M=4.23$, $SD=1.17$)에 비해 치주질환 관련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구강보건교육의 내용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본인과 자녀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구강건강의 향상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수준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16,22,23,27}과 일치한다.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 중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강보건교육경험은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차이를 가져오고, 구강건강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동 전반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변인과 구강건강 중요도 인식 변인은 .54($p<.001$)의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변인이나, 관심보다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행동에 전제가 되는 지식수준과 실천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구강건강통제위에 따라서 어머니의 치주질환 관련 구강보건지식($F=3.38$, $p<.05$)과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F=3.22$, $p<.05$)의 차이를 보였다. 즉 내적구강건강통제위 신념을 가진 어머니는 외적구강건강통제위 신념을 가진 어머니보다 치주질환과 관련된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강이 자기 자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내적구강건강통제위를 가진 어머니가 자신의 건강유지 및 질병에 대해 지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강건강관리행동을 보이고, 건강은 영향력 있는 타인이나 외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외적구강건강통제위를 가진 어머니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수집이나 구강건강관리행동에도 비교적 소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내적구강건강통제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방적 치아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고 보고한 Williams⁴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이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의 27%를 설명하고, 본

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자녀 구강건강관리행동의 24%를 설명하고,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구강건강통제위는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의 3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은 자녀의 구강보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10,15} 기본적인 생활습관은 지식을 통해서 습득되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몸에 익히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²⁸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의 바람직한 구강관리행동은 어머니의 자녀구강보건행동뿐 아니라 자녀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구강건강관리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강건강향상 홍보캠페인과 어머니들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구강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해석상의 유의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북 일부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양육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구강보건행위는 생물학적과정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과정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2,8}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유아기 구강건강관리에서 어머니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⁴⁻⁶, 본 연구결과는 특정지역의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의 기초 자료로는 유용하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된 현실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및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아버지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신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스스로 기입하고 평정하는 형식의 설문지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사용한 측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설문지법의 특성상 설문주체의 주관성과 방어기제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하여 관찰과 직접적인 검사 또는 측정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유아기 자녀구강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227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에 따라 구강보건관련 지식과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요인들이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어머니 개인적 변인 중 학력요인과 직업유무, 인지적 변인 중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 구강보건교육경험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중 구강건강통제위는 일부 구강보건지식과 구강건강관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어머니의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은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중요도, 구강건강교육경험, 구강건강통제위, 치주질환 관련 구강보건지식, 어머니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3. 어머니의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강건강관심도와 구강건강통제위도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본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본인과 자녀구강건강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구강교육경험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캠페인과 이들이 손쉽게 구강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매체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Park CH, Sohn HS, Lee JT. Parent's knowledge, cognition and behaviour about dental health care on the development of dental caries in pre-schoolers. *Inje Medical J* 2002;23(3):521-527.
- Kong MS, Lee HS, Kim SN.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dental health knowledge level, attitude toward dentist and dental health behavior.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4;18(1):84-94.
- Moon SJ, Park JH, Choi YC, Choi SC. The study of changes in oral health care of preschoolers in Teabaek city through oral hygiene education. *J Korean Pediatr Dent* 2009;36(1):71-77.
- Kang HS. The effects that the mouth management in children by parents affects the mouth management [Maste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2000.
- Song HJ.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oral health of the infant in kindergarten according to mothers' care.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8;8(1):59-71.
- Ahn YS, Kim ES, Lim DS, Jung SH, Lee HJ. Behaviour about oral health of child's mothers of child care institutions in Songnam city. *J Korean Acad Oral Health Promot* 2000;1(1):83-94.
- Cho MS, Lee SS. The effect of mother oral health guidance on child oral health behavior. *J Korean Acad Dent Hyg* 2000;2(2):173-185.
- Oh YB, Lee HS, Kim SN. Children's dental health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factors and dental health beliefs.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4;18(1):62-83.
- Chang BJ. Relation between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oral health behavior. *J Korean Soc School Health* 2006;19(2):49-57.
- Chen MS. Childr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liefs and dental behavior. *ASDC J Dent Child* 1986;53(2):105-109.
- Mattila ML, Rautava P, Sillanpaa M, Paunio P. Caries in five-year-old children and associations with family-related factors. *J Dent Res* 2000;1(1):83-94.
- Wierzbick M, Petersen PE, Szatko F, Dybizbanska

- E, Kalo I. Changing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behavior of schoolchildren in Polland. *Community Dent Health* 2002;19(4):243-250.
13. Sayegh A, Dini EL, Holt RD, Bedi R. Caries in preschool children in Amman, Jordan and the relationship to socio-demographic factors. *Int Dent J* 2002;52(2):87-93.
 14. Jang GW, Park SS. A study on the children's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10(6):1049-1059.
 15. Ryu K, Jeong SH, Kim JY, Choi YH, Song KB.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behaviour and knowledge on dental carie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4;28(1):105-114.
 16. Choi SS. 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mother and an oral health condition of children. *J Dent Hyg Sci* 2005;5(4):245-250.
 17. Kim YH, Song KB, Lee SK.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in mothers and dental health belief of their children.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2;15(1):83-92.
 18. Kim JS, Choi SS, Lee JH, Chang BJ. Association between Society-population factor in mothers and oral health knowledge of their children. *J Korean Soc Hyg Sci* 2005;11(1):91-101.
 19. Chun SY.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behaviour and knowledge on dental caries in their preschool children[Master's thesis]. Daejeon: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2005.
 20.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976302>
 21. Lee SH. The association of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and children's oral health[Master's thesis]. Gyeongbuk:Th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2011
 22. Lee KH, Shin MM, Heo SY, Ahn YS. A study on the outlook of mothers with five-year-old children in the city of Seonam on dental health and their relevent behavior.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5;5(1):63-75.
 23. Nowjack-Raymer R, Gift HC. Contributing factors to maternal and child oral health. *J Public Health Dent* 1990;50(6):370-378.
 24. Choi YH, Suh I, Kwon HK, Ji SH. Children's dental health status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s.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9; 23(1):45-61.
 25. Al-Omiri MK, Al-Wahadni AM, Saeed, KN. Oral health attitudes,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school children in North Jordan. *J Dent Educ* 2006;70(2):179-187.
 26. Kim NJ. A study on the relation of health concern, health behavior, and subjectives health status between the aged and the preliminary aged group.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000;17(2):99-110.
 27. Jung MH, Jn SH. A child oral care state according to mother'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selected preschool in Daegu metropolitan city. *J Korean Soc Dent Hyg* 2010;10(6):965-972.
 28. Kwon KA. A study in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s of nursery school teachers for young children[Master's thesis]. Gangwon:The graduate school of Kangunng National University; 2007.
 29. Park HS, Kim JS. A servey of parent's oral health perception for the oral health promotion of the preschool children. *J Dent Hyg Sci* 2007;7(3):135-139.
 30. Park DH, Lee KH. A study of the effect if mothers' health belief in children's health belief and dental health behavior. *J Wonkwang Dent Res Institute* 1994;4(1): 143-159.

31. Lee HS. Association between dental health belief and dental health-related behavior in mothers and children.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6;20(1):11-30.
32. Lee HS. Children's dental visits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factors and dental health behaviors.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7;21(1):87-105.
33. Han JH, Lim DS, Ahn YS.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e in children at age 5 and the oral health behavior in mothers for some parts of Gyeonggi region. *J Dent Hyg Sci* 2009;9(1):115-120.
34. Rajap LD, Petersen PE, Bakaeen G, Hamdan MA. Oral health behaviour of schoolchildren and parents in Jordan. *Int J Paediatr Dent* 2002;12(3):168-176.
35. Lee HY. Study on relation factors of oral health behaviors: based in health promotion model-[Maste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2000.
36. Choi GB. The influence of parents' knowledge and behavior in oral health up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havior in oral health[Master's thesis]. Gimhea: The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2003.
37. Kang KH.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 and health locus if control. *Cheongam College Collected* 1994;18:215-238.
38. Wallston BD, Wallston KA. Locus of control and health: a review of literature. *Health Education Monogr* 1978;6(2):107-117.
39. Korea Academy of Pediatric Dentist(<http://www.kapd.org>)
40. Song KH. A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oral health practices'[Maste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1999.
41. Lee SY. Structural modeling of health concern, health practice and health status of Koreans [Docto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1994.
42. Williams A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reventive dental health practice. *J American College of Dentistry* 1972;39(4):225-234.